

개최지 전남 3위 '굉충'... 투혼의 광주 5위 '선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전남에서 열린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안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지역 선수단이 선전했다. 전남선수단은 예상 순위를 훌쩍 넘어 3위에 올랐으며, 광주는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5위의 성적을 거뒀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8일 폐막한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1개·은메달 83개·동메달 88개 총득점 17만7532.95점으로 17개 시도 중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개최지 전남의 활약이 대회 시작부터 빛났다. 전남은 이번 대회 육상에서만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정화가 육상 남자 1500m(T12)와 10km 마라톤·5000m에서 금메달 3개, 이미옥이 여자 원반·창·포환던지기에서 3관왕에 올랐다.

사이클에서는 박승기가 남자트랙 개인추발 3km와 독주 1km, 스피린트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열전 마무리 전남, 육상에서 금메달 13개 광주, 사격·탁구·육상 '효자'

었다. 전남 사이클은 이번대회에서 총 금메달 7개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전남은 배드민턴에서 권연아의 3개를 포함해 5개, 역도·수영·파크골프에서 4개, 론볼에서 3개, 탁구·댄스스포츠·카누 등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파크골프에서 이정철이 남자 개인전 PGST1과 남자 2인조 단체전 통합, 혼성4인조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22개 종목에 4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광주는 모든 종목에서 선수단의 투혼이 빛났다. 특히 사격, 탁구, 육상 등 종목에서 다관왕이 나오며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주 선수단은 금 68개·은 74개·동 55개 총득점

12만5792.60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동안은 이번대회 사격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과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개인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2개를 획득한데 이어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 혼성 50m 소총 복사 R9 단체전에서도 1위를 차지해 5관왕을 차지했다.

육상 삼남매 김천천·김지혜·김선정은 각각 원반·포환·창던지기과 100m, 200m, 400m에서 1위를 차지해 한 집안 총9개의 메달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모두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 3개를 거머쥔 김지혜는 신인선수상을 수상했다.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탁구 3관왕을 차지한 서수연은 여자 단식 클래스(CLASS)2와 박진철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성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또 강선희는 비치어 여 개인전(BC3)과 혼성 2인조(페어·BC3)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하는데 힘을 보탤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육상 원반·포환·창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며 3관왕에 오른 김지혜(왼쪽)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신인선수상을 받고 양충영 대한장애인체육회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사격에서 무더기 메달 쫓다

금 5·은 5·동 2 등 12개 획득 광주시청 박동안 5관왕 등극

광주 장애인 사격팀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따냈고, 박동안(광주시청·47)은 4년 만의 복귀 무대에서 5관왕에 오르는 괴력을 발휘했다.

광주시청과 광주장애인사격연맹 소속 선수로 구성된 광주 대표팀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주 전라남도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격 종목 공기소총과 50m소총, 50m권총, 25m권총, 10m스탠다드권총, 공기권총 등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함축했다.

박동안이 이번 대회 5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새로운 사격 스타로 떠올랐다. 박동안은 사격 종목 첫 날인 지난 4일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 SH2 선수부에서 함께 252.7점으로 정상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도 김근수(광주시청), 박승우(광주시청), 임주현(광주시청)과 1890.8점을 합작하며 2관왕에 올랐다.

5일에도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개인전 SH2 선수부에서 함께 255.1점으로 3관왕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도 다시 한번 김근수, 박승우, 임주현과 가장 높은 1907.8점을 합작하며 4관왕을 차지했다.

박동안은 지난 6일에도 메달 사냥을 이어갔다. 이날 혼성 50m소총 복사 R9 개인전 SH2 선수부에서는 함께 241.4점으로 김동일(세종·242.0점)

에 밀리며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으나 단체전에서는 김근수, 박승우, 임주현과 1822.4점을 합작하며 5관왕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동안과 함께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합작하며 3관왕에 오른 김근수와 박승우, 임주현도 개인전에서 메달을 챙겼다. 김근수는 지난 5일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개인전 SH2 선수부에서 함께 254.5점으로 박동안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고, 임주현은 지난 4일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 SH2 선수부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또 박세균(광주장애인사격연맹)이 혼성 25m 권총 P3 개인전 SH1 선수부와 남자 공기권총 P1 개인전 SH1 선수부에서 은메달을 추가한 뒤 신연우(광주장애인사격연맹), 유영권(광주장애인사격연맹)과 혼성 10m 스탠다드권총 P5 단체전 SH1 선수부에서도 은메달을 합작했고 유영권은 혼성 50m 권총 P4 개인전 SH1 선수부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대표 박승우(아랫줄 왼쪽부터)와 박동안, 임주현(이상 광주시청)이 지난 6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혼성 50m소총 복사 R9 단체전 SH2 선수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이 8일 AC밀란과의 2023~24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골대 강타... PSG, 밀란에 1-2 역전패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이, 6~7점대 무난한 평점

AC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원정 경기에서 '골대 불운'에 아쉬움을 삼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6~7점대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2023~2024 UCL 조별리그 F조 4차전에서 후반 5분 올리비에 지루

에게 역전 결승골을 얻어맞고 1-2로 졌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교체 투입돼 30여분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PSG의 공격에 활기를 더했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후반 44분에는 골 지역 오른쪽에서 빠른 몸놀림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하고 왼발 슈팅을 날렸으나 오른쪽 골대를 맞춰 아쉬움을 남겼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번 활약은 패스 성공률 96%, 드리블 돌파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성공률 67% 등 수치로 확인됐다.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0을 매겼다. 양 팀을 통틀어 교체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다.

PSG의 선제골을 넣은 밀란 수코니야르가 팀에서 가장 높은 7.7점을, 오른쪽 공격을 맡은 우스만 데멜베리가 그다음으로 높은 7.6점을 각각 받았다.

PSG의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이강인과 같은 7.0점을 받았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이강인에게 양 팀 교체 선수 중 가장 높은 6.7점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이정후, MLB닷컴 선정 '매력적인 FA 9인'

"순조롭게 적응할 듯" 전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선언한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사진)를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진다.

MLB닷컴은 8일(한국시간) '가장 매력적인 자유계약선수(FA) 9인' 제하 기사에서 이정후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지난 4일 오프시즌 FA 톱 25명을 선정하며 이정후를 13위로 꼽았고, 전날 미국 폭스 스포츠는 타자 FA 랭킹에서 이정후를 4위로 매겼다.

MLB닷컴은 "한국 KBO 스타가 MLB에 적응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정후는 비교적 순조롭게(MLB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후의 발목 수술을 언급하면서도 빅리그 진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MLB닷컴은 "7월 발목 부상으로 올 시즌 86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메이저리그에 데뷔할 시점



에는 회복해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정후는 KBO 평균 연령보다 11.2년 빠른 18세에 데뷔해(7년 동안) 통산 타율 0.340, 출루율 0.407, 장타율 0.491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와 재능을 고려할 때 이정후는 대형 FA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MLB 구단들의 기대 수준에 달려있다"고 예상했다.

이정후와 함께 뽑힌 FA는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블레이크 스넬(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코디 벨런저(사카고 컵스), 맷 채프먼(토론토 블루제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조던 몽고메리(텍사스 레인저스), 에런 놀라(필라델피아 필리스), 루커스 지올리토(클리블랜드 가디언스)다. /연합뉴스

팬싱 대표팀, 월드컵 4개 대회로 새 시즌 국제대회 돌입

9월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정상 수성에 성공한 한국 펜싱 국가대표팀이 이번 주 새로운 시즌 국제대회 일정에 돌입한다.

2023~2024시즌 국제펜싱연맹(FIE) 국제대회는 9일 알제리 알제에서 막을 올리는 남녀 사브르 월드컵으로 시작된다.

남녀 사브르 월드컵이 12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가운데 10~12일 이탈리아 레냐노에선 여자 에페, 스위스 베른에선 남자 에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선 남자 플뢰레 월드컵이 각각 개최된다.

올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은·동·종합 7위) 때 '톱3'에서 밀려나는 등 한동안 국제 무대에서 주춤했던 한국 펜싱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 분위기를 끌어 올린 가운데 새 시즌에 나선다.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이번 시즌 펜싱 대표팀은 종목별로 3개의 그랑프리 대회를 포함해 8개 안팎

의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브르 그랑프리 대회가 서울에서 내년 5월 3~5일 열린다.

이번 시즌 중인 내년 4월 1일 기준 세계랭킹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 배분을 결정하는 만큼 세계랭킹에 반영되는 각 대회 결과가 올림픽 출전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따면 해당 종목엔 국가당 3명이 자동으로 개인전에 나설 수 있어서 단체전 성적이 관건이다.

단체전 출전권은 종목별 팀 세계랭킹 1~4위에 우선 주어지고, 남은 네 장은 5~16위 중에서 4개 권역별로 순위를 따져 가장 높은 팀에 준다.

중요한 시즌의 첫 대회에 남자 사브르 대표팀에 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결승에서 격돌해 금·은메달을 나눠 갖고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오상욱(대전광역시청)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출전한다. /연합뉴스